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이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생각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서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1,00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이즈에 대한 인식에서 성생활, 감염, 두려움, 죽음, 성병, 불치병 등의 핵심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의 인식구조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결과, '혈액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정상적 성행위와 관련한 부정적 생각',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에이즈의 후진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대한 핵심어 사이의 연결관계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고, 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즈 예방 캠페인 기획, 메시지 전략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에이즈, 공공캠페인, 의미연결망분석, 하위집단분석, 에이즈지식

* 이 논문은 2018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질병관리본부 황세희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jhmi0410@empal.com

1. 문제제기

“미국 등 미지의 괴질 크게 번져”

1982년 7월 20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우리나라 최초의 에이즈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이후의 보도들에서는 주로 외국의 에이즈 발생 현황과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질병관리본부, 2006). 당시에는 에이즈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전에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에이즈=죽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에이즈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환자가 발생했던 것은 1985년이지만, 2002년이 되어서야 ‘AIDS 예방은 콘돔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대국민 에이즈 예방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정부 차원에서의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17년의 시간동안 언론을 통해 에이즈 감염은 주로 성관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생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낙인 및 차별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에이즈에 대한 집단적 부정과 감염인에 대한 낙인 및 차별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를 바꾸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손애리·문정선·신승배·천성수·김성렬, 2008).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2010년부터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구자현, 2011). 하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 중심

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서 권고하는 에이즈 지식 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를 살펴보면(총 5문항), 2010년 3.18개, 2012년 3.71개, 2013년 3.81개, 2015년 3.44개, 2017년 3.3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낙인 점수의 경우에도 100점 점수로 환산했을 때, 2010년 64.2점, 2012년 64.8점, 2013년 63.1점, 2015년 67.2점, 2017년 62.3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0, 2012, 2013, 2015, 2017).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뿐, 에이즈에 관한 지식이나 낙인 점수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 전달자의 생각과 수용자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메시지 전달자의 입장에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 에이즈에 대한 인식 및 감염인에 대한 차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올바른 정보 전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와 같이 목표공중이 특정문제나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고 정보적인 캠페인 메시지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한미정,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 입장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에이즈 인식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특정한 이론적 배경이나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 혹은 개념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잠재적 의미,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Doerfel & Marsh, 2003; Popping, 2000). 특히나 귀납적 시각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의미나 특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김봉철·정운관·최명일, 2015), 초등 예비교사가 생각하는 과학의 의미(김동렬, 2013), 코칭에 대한 일반인과 코칭전문가의 인식 비교(정은경, 2016), 관광지 이미지 분석(서정아·오익근, 2017) 등과 같이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을 구조화하는데 적용되었고,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공동출현(co-occurrence)을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추상적인 대상을 구조화 혹은 구체화하는데 장점이 있다. 예컨대, 이 연구의 주제인 ‘에이즈’가 주로 연결되는 단어가 ‘성병’인 경우와 ‘만성질환’인 경우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지식, 차별 및 낙인 등과 같은 변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에이즈 관련 공공캠페인을 기획 및 실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에이즈 관련 선행연구

에이즈는 사회적 낙인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 때문에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이 큰 질병이다(김소영·이진석·박수경·김용익,

2008). 또한, HIV/AIDS 감염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차별로까지 연결되곤 한다(Deacon & Boulle, 2006).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선행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크게 ①에이즈에 대한 지식, 감염의 심각성, 낙인 등에 대한 기술 분석, ②에이즈 관련 정보 습득 채널이나 메시지의 효과, ③ 에이즈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④ 에이즈 인식 유형에 대한 분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경향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 감염의 심각성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경우이며, 주로 에이즈에 대해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보통 수준이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우, 1994; 박상화·임달호·이봉경·한정호, 2002; 김소영·이진석·박수경·김용익, 2008; 양영란, 2015). 또한, 에이즈 감염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낙관적 편견이 존재하며(차동필, 2004; 김봉철·최양호·최명일, 2006; 손애리·Florecel Tabang·문정선·고승덕, 2009),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정태·서순림·조은정, 2003; 천성수·김주리·신승배·손애리, 2008)

두 번째 연구경향은 에이즈 관련 정보습득 채널이나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한 경우이다. 먼저 정의철·이선영(2008)의 연구에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는 주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노출이 적고, 에이즈 예방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정·전의성·이병관(2016)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을 주요한 정보 습득 채널로 보고, 정보습득 경험, 정보 습득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른 에이즈 지식,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감염인에 대한 태도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편,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는 공포소구와 메시지 측면성(최명일, 2007), 메시지 프레이밍

과 메시지 측면성(송병원, 2016)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연구경향은 에이즈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경우이다. 주로 보건 및 간호학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에이즈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이전과 이후의 지식, 태도, 예방의도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장순복·강희선·신수린·채현주, 2006; 손정태·이은주·김현미, 2007; 이은현·문성미·박종윤, 2010).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한 참여형, 토론형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 연구경향은 에이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생각을 분석한 경우이다. 먼저 한미정(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에이즈는 사고처럼 임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운이 없으면 걸리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이즈는 일회성 성관계(원조교제)나 문란한 성관계를 한 사람들과 같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Q방법론을 적용하여 에이즈 인식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안이수, 2016; 이영선·송명섭·박은미, 2017). 조사대상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안이수(2016)의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부정형, 사회적 지지형, 이기적 사고형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영선·송명섭·박은미(2017)의 연구에서는 객관성 지향형, 과장된 공포형, 낙관적 편견형, 현실인지 및 공공대책 촉구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선행연구는 에이즈가 다른 질병과 구분되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람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에이즈 감염은 일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상관이 없는 질병이며, 이들을 차별하거나 낙인찍는 현상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을 통해서는 에이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는 ‘이렇다’라고 규정하거나 정의내릴 수 없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식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예컨대, ‘에이즈’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나 개념이 바로 에이즈를 바라보는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생각이나 평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다차원적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하위 집단 분석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 차원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주요 핵심어는 무엇이며, 전체 연결망 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또한, 전체 연결망 구조는 하위 집단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 에이즈 지식의 중요성

에이즈 지식은 에이즈와 관련한 다양한 인식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Adeyemo & Oyinloye, 2007; Delobelle, Rawlinson, Ntuli, Malatsi, Decock, & Depoorter, 2009; Naing et al., 2010). 국내 연구에서도 에이

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이즈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천성수·김주리·신승배·손애리, 2008; 손애리·문정선, 2009; 이병관·오현정·금세연·이윤재, 2012; 손애리, 2013)

구체적으로, 천성수·김주리·신승배·손애리(2008)의 연구에서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는데,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이병관·오현정·금세연·이윤재(2012)의 연구에서도 에이즈에 관한 지식 부족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감염인에 대한 낙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애리(201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공익 광고의 노출과 에이즈 지식, 낙인 및 차별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에이즈 공익 광고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에이즈 지식이 증가하며, 에이즈 지식이 증가할수록 낙인 및 차별의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익 광고를 통해 얼마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낙인 및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즈 지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관련 지식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r=-.292, p<.01$), 부정적 태도($r=-.098, p<.01$), 개인적 낙인($r=-.207, p<.01$), 사회적 낙인($r=-.119, p<.01$) 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7). 이 보고서에서는 상관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지만, 에이즈 지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식과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생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 및 조사결과를 종합했을 때, 에이즈 지식은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태도, 행동 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에이즈 지식에 따라서 에이즈를 바라보는 생각이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예컨대, 정교화가능성모형을 적용해보면, 에이즈 지식이 적은 사람은 에이즈에 대해 감정적, 편향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에이즈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에이즈에 대해 객관적, 사실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에이즈 지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전체 연결망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적 차이가 있는가?

4. 연구방법

1)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가장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자료수집은 1:1 대인면접을 이용하였으며,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층화 다단계 집락 비례할당(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Quota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만 15~59세의 16개 도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이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513명(51.3%), 여성 487명(48.7%)을 조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 90명(9%), 20대 195명(19.5%), 30대 217명(21.7%), 40대 254명(25.4%), 50대 244명(24.4%)을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490명(49%), 대재 이상 510명(51%)을 조사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 34명(3.4%), 200만원~300만원 미만 101명(10.1%), 300만원~400만원 미만 310명(31%), 400만원~500만원 미만 282명(28.2%), 500만원 이상 273명(27.3%)을 조사하였다.

<표 1>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의 응답자 특성(n=1,000)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별	남성	513	51.3	교육 수준	고졸이하	490	49	연 령 대	10대	90	9
	여성	487	48.7		대재이상	510	51		20대	195	19.5
					200만원 미만	34	3.4		30대	217	21.7
				소 득 수 준	200만원~300만원 미만	101	10.1		40대	254	25.4
					300만원~400만원 미만	310	31		50대	244	24.4
					400만원~500만원 미만	282	28.2				
					500만원 이상	273	27.3				

3) 측정 도구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핵심어를 확인하고, 지식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부분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서 제시된 문항 중에서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한편, 지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서 제시된 지식 측정 문항 중에서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서 HIV/AIDS 감염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실에 대한 보편적 지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권고한 5가지 문항을 이용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7).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한 고정 상대자 한 사람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정답 O), ②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건강해 보일 수 있다(정답 O), ③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정답 O), ④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정답 X), ⑤ 에이즈 감염인을 문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정답 X).

지식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정답 문항의 수를 점수화하였고(0~5점), 평균값(3.34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은 505명(50.5%), 높은 집단은 495명(49.5%)으로 구분하였다.

4) 의미연결망 분석의 특징 및 분석 절차

의미연결망 분석을 위해서는 보통 4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에이즈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응답 내용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를 추출하였으며, 총 289개의 단어(총 2,014회 등장)가 등장하였다. 또한, 의미는 같지만 응답자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는 용어를 통일시켰다. 예를 들어, 병과 질병은 질병, 옳는 병과 전염병은 전염병, 사망과 죽음은 죽음 등으로 통일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분석 대상이 될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단어의 등장빈도, 전체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분석대상 핵심어 수의 적절성, 분석결과 간의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회 이상의 단어를 최종분석을 위한 핵심어로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핵심어 사이의

〈표 2〉 HIV/AIDS 관련 단어 수, 등장빈도

	단어수	총 등장빈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10회 이상	22개	1,130회	56.1%
9회 이상	25개	1,157회	57.4%
8회 이상	30개	1,197회	59.4%
7회 이상	33개	1,218회	60.5%
6회 이상	40개	1,254회	62.3%

* 10회 이상의 등장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22개이며, 이들 단어의 총 등장빈도는 1,130회라는 것을 의미함.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공동출현빈도를 바탕으로 행렬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텍스트분석 프로그램인 KrKwic(박한우·Leydesdorff, 2004)을 활용하였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만들어진 행렬자료를 바탕으로 Ucinet, Netdraw를 이용하여 연결망 분석 및 시각화를 실시하였다(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

4. 분석 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핵심어는 무엇이며, 전체 연결망 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전체 연결망 구조는 하위 집단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에이즈와 관련한 핵심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불치병(140회), 성병(129회), 성생활(119회), 감염(96회), 죽음(94회), 두려움(87회), 전염병(66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에이즈가 주로 성관계로 인한 것이며, 감염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빈도분석만으로는 각 핵심어가 전체 연결망 구조에서의 역할, 연결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심성 지수(연결정도, 매개)를 살펴보았다(Freeman, 1979). 대표적인 중심성 지수 중에 하나인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김준현, 2015).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

과 연결된 선의 합을 말한다. 이 값이 클수록 다른 핵심어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은 어떤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 사이에 연결관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값이다. 따라서 이 값이 큰 핵심어를 제외하면 문장의 이해나 연결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지수가 모두 높은 핵심어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이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결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성생활, 감염, 성병, 문란한, 전염병 등의 순서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은 성생활, 두려움, 죽음, 불치병, 성병 등의 순서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핵심어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심에 위치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핵심어 사이의 연결관계를 시각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핵심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 핵심어는 전체 연결망 구조에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며, 핵심어 사이에 관계성이 높을수록 서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였다(Kamada & Kawai, 1989). 또한, 핵심어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 값이 클수록 크게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핵심어 사이의 선은 핵심어 사이의 동시출현빈도가 많을수록 굵게 표시하였다.

한편, 에이즈 관련 인식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 집단(subgroup)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텍스트들이 어떤 단어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전체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 집단별로 어떤 단어들이 연결관계를 형성하며, 메시지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위집단 분석이 필요하다(김준현, 2015).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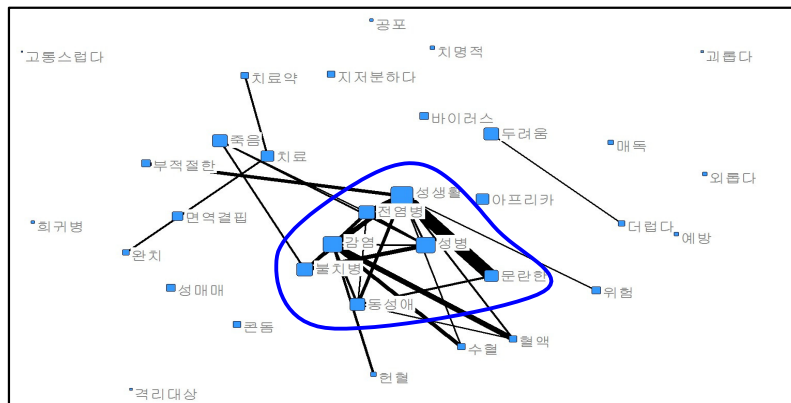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표 3〉 에이즈에 대한 주요 핵심어의 등장빈도 및 중심성 지수

핵심어	등장빈도		연결정도		매개	
	횟수	%	값	순위	값	순위
불치병	140	7.0	6.7	6	11.0	4
성병	129	6.4	7.6	3	9.8	5
성생활	118	5.9	15.6	1	15.9	1
감염	96	4.8	11.2	2	8.8	6
죽음	94	4.7	3.8	9	12.4	3
두려움	87	4.3	3.3	10	13.2	2
전염병	66	3.3	7.3	5	5.0	7
동성애	65	3.2	5.7	7	3.2	9
문란한	64	3.2	7.4	4	4.0	8
면역결핍	54	2.7	2.2	13	1.4	14
성매매	30	1.5	1.9	15	2.7	12
위험	24	1.2	1.7	16	0.9	17
더럽다	22	1.1	1.3	19	0.1	26
혈액	22	1.1	4.0	8	0.0	29
아프리카	19	0.9	1.7	16	2.9	10
완치	18	0.9	1.1	23	0.1	24
공포	15	0.7	0.6	25	0.1	25
수혈	15	0.7	2.7	11	0.1	23
부적절한	14	0.7	2.2	13	1.1	16
지저분하다	14	0.7	0.9	24	0.4	20
콘돔	13	0.6	1.3	19	0.4	19
바이러스	11	0.5	1.2	22	1.4	13
매독	9	0.4	0.6	25	0.2	22

〈표 3〉 에이즈에 대한 주요 핵심어의 등장빈도 및 중심성 지수 (계속)

핵심어	등장빈도		연결정도		매개	
	횟수	%	값	순위	값	순위
치료	9	0.4	2.7	11	2.8	11
헌혈	9	0.4	1.5	18	0.0	29
고통스럽다	8	0.4	0.2	32	0.0	29
괴롭다	8	0.4	0.2	32	0.0	29
예방	8	0.4	0.6	25	0.0	28
외롭다	8	0.4	0.4	28	1.2	15
희귀병	8	0.4	0.4	28	0.0	29
격리대상	7	0.3	0.3	31	0.0	27
치료약	7	0.3	1.3	19	0.5	18
치명적	7	0.3	0.4	28	0.2	21



* 전체 연결망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관계가 5회 이상인 경우만 표시함.

〈그림 1〉 에이즈에 대한 전체 연결망 구조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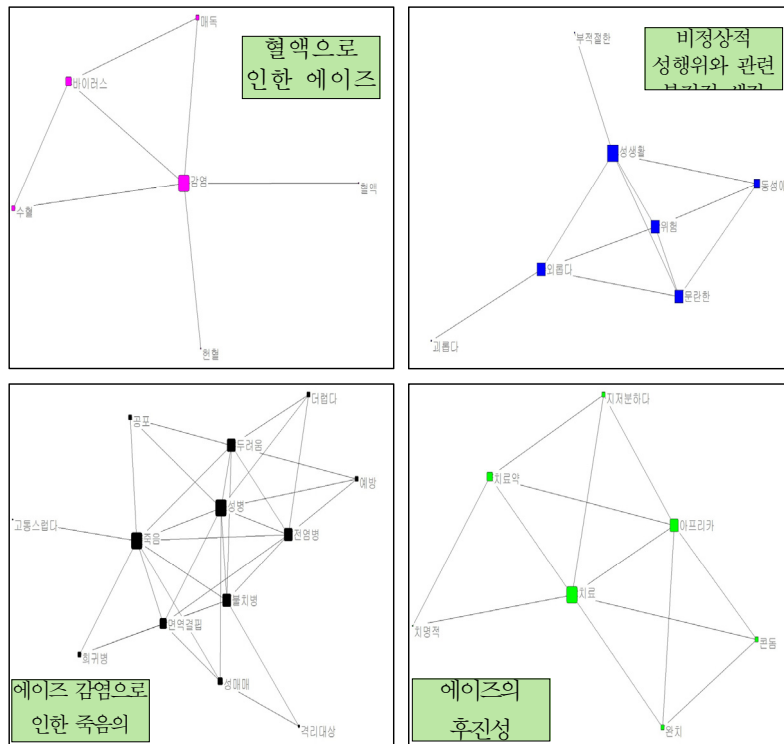
위해 이 연구에서는 NCD(Newman Community Detect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듈성(modularity)을 근거로 최적의 하위 집단을 탐색하였다(Newman, 2004). 여기서 모듈성은 하위 집단 내의 구성원이 다른 집단과 중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단 내의 연결이 집단 사이의 연결보다 많아서 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정도를 말한다. 최댓값은 1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듈성 값이 .239일 때, 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하위 집단 1은 감염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수혈, 매독, 혈액, 헌혈 등의 핵심어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혈액과 관련한 감염 경로에 대한 핵심어들이므로, ‘혈액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하위 집단 2는 위험, 성생활, 동성애, 문란한, 외롭다를 중심으로 연결망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핵심어는 위험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와 관련한 핵심어들이므로, ‘비정상적 성행위와 관련한 부정적 생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하위 집단 3은 성병, 죽음, 두려움, 전염병, 불치병 등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공포, 더럽다, 예방, 면역결핍, 성매매, 희귀병, 격리대상, 고통스럽다 등의 핵심어가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가 불치병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 핵심어이므로,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하위 집단 4는 치료, 치료약, 아프리카 등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지저분하다, 치명적, 콘돔, 완치 등의 핵심어가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핵심어는 주로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며, 특별한 치료(혹은 치료약)가 어렵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핵심어들이므로, ‘에이즈의 후진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하위 집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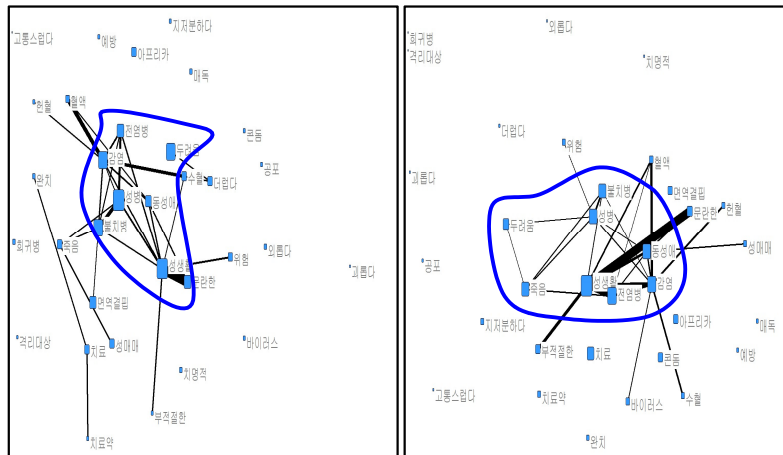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에이즈는 ‘성생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이며, 감염, 성병, 불치병, 전염병 등의 핵심어가 전체 연결망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집단 분석을 고려했을 때, 에이즈는 비정상적 성행위, 죽음의 두려움, 혈액으로 인한 감염, 에이즈의 후진성 등과 같은 4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된 복잡한 인식 구조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2)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에이즈 지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전체 연결망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식수준에 따라 에이즈 관련 핵심어의 연결망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낮은 지식집단에서는 성생활, 감염, 성병, 불치병, 두려움, 전염병, 동성애, 문란한 등의 핵심어가 전체 연결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의 좌측). 한편, 높은 지식 집단에서는 성생활, 감염, 죽음, 두려움, 성병, 불치병, 동성애, 전염병 등의 핵심어가 전체 연결망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의 우측). 에이즈에



* 전체 연결망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관계가 3회 이상인 경우만 표시함.

<그림 3>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른 연결망 구조(좌: 낮은 집단, 우: 높은 집단)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성생활과 관련한 감염, 이로 인한 죽음이나 치료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생각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에이즈 지식수준에 따른 연결망 구조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QAP 상관분석(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QAP 상관관계 분석은 행렬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N×N의 행렬표의 형태를 이용해서 행과 열이 무작위로 치환된 이후 상관관계의 값을 재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Tutzauer, 1993; 전범수, 2005, p.59에서 재인용).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그 유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두 종류의 연결망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에이즈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의 상관계수는 .8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결국,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이즈 지식수준에 따라 핵심어의 위치, 영향력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두 집단 사이의 연결망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에이즈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QAP 상관관계 분석 결과

	high	low
high	1	
low	.81*	1

*p<.01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 및 차별 해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에이즈 예방 캠페인 기획이나 메시지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에이즈에 대한 인식구조를 구체화하고, 향후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에서는 에이즈와 관련한 핵심어가 무엇이며, 전체 연결망 구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성생활, 감염, 두려움, 죽음, 성병, 불치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성생활’이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모두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등장빈도를 고려했을 때는 불치병, 성병 등의 핵심어가 많이 언급되었지만, 전체 연결망 구조에서는 ‘성생활’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에이즈와 성생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불치병’은 등장빈도는 가장 많지만, 연결정도 중심성은 6위, 매개 중심

성은 4위인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핵심어와는 연결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립적인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이즈에 대한 전체 연결망 구조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결과,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혈액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정상적 성행위와 관련한 부정적 생각’,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에이즈의 후진성’ 등과 같은 4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 집단 모두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들이다. 이는 연구방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에이즈는 객관적인 생각과 부정적/감정적인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안이수, 2016; 이영선·송명섭·박은미, 2017).

한편, 연구문제 2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핵심어 사이의 연결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연결망 구조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지식 제공이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천성수·김주리·신승배·손애리, 2008; 손애리·문정선, 2009; 이병관·오현정·금세연·이윤재, 2012; 손애리, 2013).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에이즈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애리·Florecil Tabang·문정선·고승덕, 2009). 특히나 양영란(2015)의 연구에서는 성인남녀의 에이즈 지식 및 태도의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고지식 부정태도군, 고지식 긍정태도군, 저지식 부정태도군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에이즈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 태도 집단과 긍정적 태도 집단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에이즈

지식이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에이즈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에이즈 감염인을 실제 경험한 비율은 2015년 0.6%(질병관리본부, 2015), 2017년 1.2%(질병관리본부, 2017)인 상황에서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에이즈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다양한 예방 캠페인이 효과를 보았다면, 이 연구에서 에이즈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언급되는 핵심어 사이의 연결관계에서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이즈는 만성질환이다’라는 메시지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에이즈=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성질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에이즈에 대한 전체 연결망 구조에서는 죽음이나 불치병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에이즈=성생활’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해소를 위해 에이즈는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고, 주로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에이즈=성생활’이라고 하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에이즈 감염과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서 ‘에이즈=성생활’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에이즈’의 병명을 새롭게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하겠다. 과거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질병인 조현병이나 한센병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에이

즈 문제에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을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People Living with HIV/AIDS)’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김승섭, 2018). 에이즈 감염인은 단순히 HIV라고 하는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고, 치료와 관심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성생활이 에이즈 감염인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에이즈 예방캠페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을 했지만, 실제 에이즈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캠페인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선행연구들에서 일면적 메시지보다 양면적 메시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최명일, 2007; 송병원, 2016). 넷째, 에이즈 지식수준과 핵심어 사이의 연결관계 사이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에이즈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존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 향상→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의 논리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핵심어인 ‘성생활’과 연결된 다른 핵심어 사이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구체화하고,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인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은 첫째, 2017년의 ‘에이즈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에이즈에 대한 생각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 유지, 변화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조사 자료와 비교한다면, 보다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항이 아니라, 심층인터뷰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생각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접근방법으로는 에이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느낌만을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일반인의 응답결과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에이즈 감염인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언론/미디어 내용을 통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의 응답과 언론/미디어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면 이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석된 핵심어의 수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어 수의 적절성, 분석결과의 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회 이상의 핵심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연결망 구조는 핵심어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 및 활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병우 (1994). 대학생의 성 및 AIDS에 관한 의식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1권 1호, 43-56.
- 구자현 (2012). 2011년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공익광고, 온라인)의 매체 효과와 커뮤니케이션 효과 분석. <주간 건강과 질병>, 5권 29호, 541-545.
- 김동렬 (2013).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한 초등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의미 분석. <초등과학교육>, 32권 3호, 27-345.
- 김봉철, 정운관, 최명일 (2015). 고등학생들의 원자력 인식구조에 대한 언어 연결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7호, 578-590.
- 김봉철, 최양호, 최명일 (2006). 에이즈(AIDS) 예방 캠페인과 낙관적 편견: 자아 존중감과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7권 2호, 43-58.
- 김소영, 이진석, 박수경, 김용익 (2008).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권 4호, 13-28.
- 김승섭 (2018.4.25.). 30년 전에 머무른 에이즈에 대한 인식. 시사HN. Available:<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685>
- 김준현 (2015).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해석에 관한 소고: 행정학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4호, 247-280.
- 박상화, 임달오, 이봉경, 한정호 (2002). 남자 대학생의 콘돔, 성병/에이즈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5권, 46-55.
-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권 5호, 1377-1388.

서정아, 오익근 (2017).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대구의 관광지 이미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7호, 443-454.

손애리 (2013). 고등학생의 에이즈 지식, 낙인 및 감염인 차별: 에이즈 공익광고 노출여부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4권 1호, 211-235.

손애리, Tabang, F, 문정선, 고승덕 (2009). 서울시 고등학생의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보건과 사회과학>, 25, 57-78.

손애리, 문정선 (2009).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에이즈 지식, 태도 및 성행동.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0권 1호, 105-122.

손애리·문정선·신승배·천성수·김성렬(2008).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구조모형을 이용한 에이즈 낙인의 매개효과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제23집, 31-56.

손정태, 서순림, 조은정 (2003). 일부 대학생의 AIDS에 대한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예방의도 및 지식. <기본간호학회지>, 10권 3호, 383-391

손정태, 이은주, 김현미 (2007). 토론식 AIDS 교육이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예방의도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4권 4호, 515-523.

송병원(2016). 예방 메시지 유형과 조절초점에 따른 에이즈 예방 효과. <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123-152.

안이수(2016). AIDS인식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권 10호, 46-53.

양영란 (2015). 국내성인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의 유형과 관련요인. <대한보건연구>, 41권 4호, 51-62.

- 오현정, 전의성, 이병관 (2016). 텔레비전을 통한 에이즈 정보 습득이 에이즈 및 감염인 관련 지식, 태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권 4호, 55-101.
- 이병관, 오현정, 금세연, 이윤재 (2012). 지식 격차가 에이즈 개인적 낙인과 사회적 낙인에 미치는 영향.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6권 1호, 93-134.
- 이영선, 송명섭, 박은미 (2017). 에이즈(AIDS)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 태도. <주관성 연구>, 38호, 145-163.
- 이은현, 문성미, 박종윤 (2010). 에이즈 예방교육이 서울·경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7권 2호, 200-208.
- 장순복, 강희선, 신수린, 채현주 (2006). 에이즈 교육 후 에이즈 관련 지식, 감염자 수용성 및 콘돔사용의도의 변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권 3호, 397-406.
- 진범수 (2005).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구조: 1990~2004. <한국방송학보>, 19권 1호, 47~75.
- 정은경(2016). 코칭에 대한 일반인과 코칭전문가의 인식: 상담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55권 2호, 357-379.
- 정의철, 이선영 (2008). 에이즈 예방 커뮤니케이션 분석 연구: 개혁확산이론과 문화적 감수성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6호, 323-340.
- 질병관리본부 (2006).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 질병관리본부 (2010).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 조사.
- 질병관리본부 (2012).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 조사.
- 질병관리본부 (2013).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 조사.
- 질병관리본부 (2015).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 조사.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질병관리본부 (2017).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 조사.
- 차동필 (2004). 에이즈 문제에 대한 관여도 차원별 인식의 차이와 낙관적 편견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8권 1호, 137-160.
- 천성수, 김주리, 신승배, 손애리 (2008).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중고등학생 간 비교: 에이즈 낙인의 매개 효과.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9권 1호, 63-83.
- 최명일 (2007). 메시지 유형에 따른 에이즈 예방 캠페인 효과: 공포소구와 메시지 측면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8권 2호, 185-206.
- 한미정 (2007). 감지적 접근에 따른 AIDS 예방과 콘돔이용에 대한 질적 연구. <광고학연구>, 18권 2호, 53-82.
- Adeyemo, D. A., & Oyinloye, A. A. (2007). Predispositional Factors in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HIV/AIDS Seropositive Persons in the Workplace: A Case Study of Osun State, Nigeria. *Journal of Social Sciences*, 15(3), 279-292.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Deacon, H., & Boule, A. (2006). Commentary: Factors affecting HIV/AIDS 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6, 185-186.
- Delobelle, P., Rawlinson, J. L., Ntuli, S., Malatsi, I., Decock, R., & Depoorter, A. M. (2009). HIV/AIDS knowledge, attitudes,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rural nurses in South Afric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5), 1061-1073.
- Doerfel, M. L., & Marsh, P. S. (2003). Candidate-issue positioning in the

- context of presidential debates. *Journal of Allied Communication Research*, 31(3), 212-237.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215-239.
- Kamada, T., & Kawai, S. (1988). An algorithm for drawing general undirected graphs. *Information processing letters*, 31(1), 7-15.
- Naing, C. M., Hakim, M., Yee, D. A. T., Mun, K. R., Yung, T. C., Kong, K. J., Jian, K. L., & Kuan, S. S. S. (2010). HIV/AIDS-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A cross-sectional household survey. *Southeast Asi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41(4), 952-960.
- Newman, M. E. J. (2004). Fast algorithm for detecting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hysical Review E*, 69(6). 1-5.
-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Tutzauer, F. (1993). Statistical comparison of communication networks. In Richards, Jr., W. D., & Barnett, G. A.(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pp.135~163). Stanford, CT: Ablex.

최초 투고일: 2018년 11월 02일

논문 수정일: 2018년 12월 0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2월 24일

사람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공캠페인 시사점 중심

How do people perceive AIDS ?: Focusing on Public Campaign Implication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Choi, Myung-il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

In this stud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direct, fundamental ideas about AIDS. We analyzed ‘National Survey 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2017’ released by the KCDC(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awareness of AIDS, key words such as sexual life, infection, fear, dea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incurable disease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bgroup analysis, AIDS awareness can be divided into ‘AIDS infection caused by blood’, ‘A negative thinking of abnormal sex’, ‘Fear of death from AIDS’, ‘Backwardness of AIDS’. Finally, the link between the key words of AIDS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AID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planning of AIDS prevention campaign and message strategy were discussed.

Key words : AIDS, Public Campaign, Semantic Network Analysis, Subgroup analysis, Knowledge of AIDS